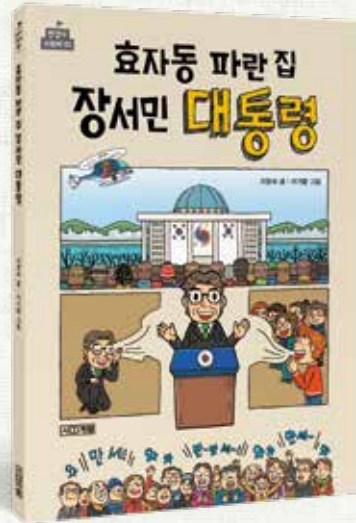

효자동 파란 집 장서민 대통령



이창숙 글 | 이기랑 그림 | 112쪽

- 4학년 1학기 사회 3.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4학년 2학기 사회 3. 지역 사회의 발전
-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 남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힘없는 사람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발전보다는 고루 잘 살 수 있으며, 대립이 아닌 어울려 사는 세계다. 하지만 시작부터 그는 반대에 부딪힌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는 국민의 과반수가 선택한 대통령이지만 역시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협을 하지만, 소신만은 꺾지 않는다. 또 약자에게는 자세를 낮추지만, 신념을 지킬 때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멀기만 하던 청와대가 동네 사랑방처럼 느껴진다. 언제고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학습 목표)



뉴스에서 보는 대통령은 바쁜 사람이다.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홍길동처럼 등에 번쩍 서에 번쩍 옮겨 다닌다. 외국도 심심찮게 나간다. 대통령은 대체 매일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 또 왜 그리 바쁠까? 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라는 뜻일 게다. 무지하게 바쁜 사람, 우리가 아는 건 대략 그 정도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우리를 대신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라는 뜻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교과서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며 국군 통수권자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선뜻 와닿지 않는다. 국민과 나라를 대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행정부 최고 책임자나 국가 통수권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막연하다. 지금부터 장서민 대통령을 졸졸 따라다니며 그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자.

- 대통령 선거 과정을 이해한다.
-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국군통수권자로 대통령의 할 일이 무엇인지 공부해 본다.
- 영부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본다.





(독전 활동)

대통령이 되어 다른 나라 원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자.

- ➔ 핵 실험을 지속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 ➔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를 일삼는 일본 총리에게
- ➔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중국 주석에게
- ➔ 재해(에콰도르)나 테러(프랑스)가 발생한 국가 원수나 국민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 보자.
- ➔ 그밖에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골라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자.

▶ 선생님은 아이들이 편지를 쓸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라고 이야기해 준다.

- 편지의 첫머리는 '안녕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본인 이름)입니다'로 시작할 것.
- 한 나라의 대통령 자격으로 쓰는 것이므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출 것.
- 북한이나 일본, 중국 지도자에게 쓸 때는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와 불만을 잘 설명하고 요구 사항을 적을 것.





(독후 활동)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다.

- ➔ 대통령 선거는 아무나 나갈 수 없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말해 보자.
- ➔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말해 보자.
- ➔ 장서민 대통령은 '사형제'를 폐지하길 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정당에는 크게 여당과 야당이 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장서민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로부터 우리 국군을 해외에 파병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대통령은 파병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영부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 보자.
- ➔ 임기가 끝나갈 즈음, 장서민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자는 부탁을 받는다. 장서민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